

2024-06-03 (2024-22호)

06월 03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원화 약세 가속화에 1,400원 가시권...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증시 조정 주목

서울, 6월3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따른 글로벌 달러 방향과 역내 수급에 흔들리는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60-1,400원이다.

한동안 변동성을 줄인 채 하방경직적인 움직임을 유지했던 환율은 지난주 후반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우더니 단기 박스권 상단을 별다른 저항없이 뚫어냈다. 그 결과 환율은 또 다시 1,400원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달러 강세 정도에 비해 원화 약세폭이 훨씬 컸던 터라 수급을 둘러싼 경계감은 한층 커졌다.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열기에도 한국 증시가 한동안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다 지난달 후반에는 오히려 외인 자금 이탈 행렬이 가속화됐다.

상대적 원화 약세를 부추긴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장참가자들은 외인 주식 관련 수급을 원화 약세를 자극한 주요인으로 연결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은 커스티디와 역외 세력의 매수 강도에 주목하며 상단 저항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도, 또는 반대로 조정 장세를 형성해도 모두 원화에 약세 재료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6월 연방준비제도(연준)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를 비롯해 미국 고용지표 등을 소화하면서 달러는 그때 그때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단기물 국채 입찰 결과에 따른 금리 반응도 달러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금주는 캐나다와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회의가 예정돼있는데 둘다 25bp 금리 인하가 폭넓게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이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후 글로벌 달러가 어떤 방향을 보일지는 경계된다.

강달러 모멘텀이 확산된다면 최근 시장 분위기로는 달러/원 환율은 금방 1,400원대 진입을 시도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이 확실히 1,400원대에 대한 경계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율이 새로운 '빅 피겨'로 접근할 경우 당국 변수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환시장 제도개선 공식시행을 한 달 앞두고 외환건전성협의회가 열린다. 제도 개선 관련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의 국내은행 선정 예고와 5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또한, 5월 소비자물가 결과도 나온다.

▶ 주간 세계 5대 이슈

⊙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

미국 경제가 마침내 냉각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몇 달간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 오는 7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통해 퍼즐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나치게 강한 경제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를 전혀 내리지 못하거나 심지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 시장 냉각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달간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인내심을 촉구했다. 고용 보고서가 일자리 창출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인도 총선 결과

오는 4일 개표가 예정된 인도의 6주간의 총선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투자자들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선 연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서는 모디 총리가 승리하면 인도에 정치적 안정과 연속성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주식시장은 2023년에 대부분의 주요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미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 모디 총리가 연립 정부의 일원으로도 집권한다면 주가는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다.

2일 치러진 멕시코 대통령 선거 결과도 관심거리다. 멕시코 페소 가치는 지난 한 주 동안 선거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 석유 시장

석유 시장은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인 연중 최대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다. 원유 선물은 전년비 10% 상승 중이며 중동 긴장 고조는 시장을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 선물은 7% 하락해 주유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평소 이맘때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소비가 공급에 타격을 줄 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전망과 그에 따른 연료 수요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들(OPEC+)의 2일 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 영국 M&A

호주 광산 기업 BHP그룹이 490억달러 규모의 영국 동종업체 앵글로아메리칸 인수 계획을 결국 포기했다. 그러나 4월 BHP그룹의 이러한 인수 제안은 영국 M&A의 부활을 보여줬다.

필 헌트에 따르면 4월에는 영국에서 38개 기업이 매물로 나왔으며, 이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은행가들은 금리 전망과 경제적 배경이 안정되고 사모펀드와의 자산 경쟁이 여전히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영국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자산의 지속적인 저렴한 가격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FTSE100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은 최소 1990년 이후 S&P500 대비 가장 큰 할인율로 거래되고 있으며, 범유럽 스톡스600 및 독일 닥스지수의 성과에도 뒤처지고 있다.

⊙ ECB 정책회의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6일 금리를 인하하는 첫 번째 주요 중앙은행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사실상 6월 인하를 약속했고, 금리는 3.75%로 25bp 인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모든 초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떤 힌트를 줄 것인지에 맞춰질 것이다.

유로존의 주요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고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분기 임금 상승률은 가속화되어 6월 이후의 금리 전망은 불확실하다.

트레이더들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올해 ECB가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높지만, 인하 횟수에 대한 베팅은 줄었다.

연초에는 올해 최소 다섯 차례, 지난 회의 때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됐으나 지금은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며, 세 번째 인하 가능성은 50% 미만으로 전망된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다우 운송주 하락, 경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

뉴욕, 6월3일 (로이터) -

미국 주요 주가지수는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경제에 민감한 한 분야가 아픈 부분으로 눈에 띄고 있다.

다우존스 운송지수.DJT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5% 하락했는데, 이는 벤치마크 지수인 S&P500지수.SPX의 연초 대비 9% 상승과 이번 달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돌파한 다우지수.DJI의 1% 상승과는 상당한 대조를 이룬다.

S&P500, 나스닥지수.IXIC,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는 모두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 운송지수는 아직 2021년 11월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그보다 약 12% 낮은 수준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철도 운영사, 항공사, 패키지 운송 회사 및 트럭 운송 회사를 포함하는 20개 주식으로 구성된 운송지수의 부진이 경제의 약세를 나타내거나 더 넓은 시장의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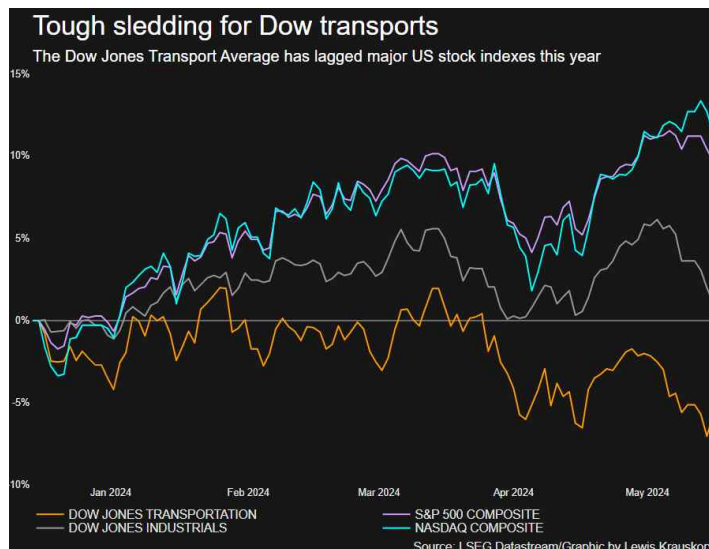
호라이즌 투자 서비스의 CEO인 척 칼슨은 다우 운송지수가 "미래 경제 활동의 바로미터"라며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경기 둔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송업종의 약세는 기술주 중심의 S&P500지수 상승이 다른 경제 부문의 실적 약세를 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먼트의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매튜 미스킨은 운송업이 활기를 되찾지 않는 한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주보다 경제 성장에 더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소형주나 부동산주,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일부 유명 소비자 주식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주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1분기에 연율 1.3% 성장하여 2023년 4분기 3.4%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경제와 시장에 대한 주요 테스트는 오는 7일에 발표되는 월간 미국 고용 보고서가 될 것이다.



한편 경제의 신호탄으로 간주되는 또 다른 업종인 반도체주는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필라델피아 SE 반도체지수.SOX는 올해 20% 상승했는데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의 사업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엔비디아 및 기타 반도체 기업에 몰린 영향이다.

시장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 다우 운송과 다우 산업을 함께 추적하는 호라이즌의 칼슨은 전반적인 시장 추세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운송지수가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산업주와 광범위한 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6월3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6월3일(월)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10:00)
- ⊙ 기획재정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10:00)

6월4일(화)

- ⊙ 통계청: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외화건전성협의회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 (08:30)
- ⊙ 금융감독원: 원장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11:20)
- ⊙ 한국은행: 이종통화 외환매매 거래기관으로 국내은행 선정 예정 (12:00)

6월5일(수)

- ⊙ 한국은행: 2024년 5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한국은행: 202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08: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14:30)

6월6일(목)

- ⊙ 현충일

6월7일(금)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14: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6월30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6월3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확정치 SA	5월		50.5
6월3일	10:45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5월	51.5	51.4
6월3일	17: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확정치	5월	47.4	47.4
6월3일	22: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확정치	5월		50.9
6월3일	23:00	미국	건설지출 MM	4월	0.2%	-0.2%
6월3일	23:00	미국	ISM 제조업 PMI	5월	49.6	49.2
6월3-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5월		1,279.0B
6월3-10일	23:00	미국	자동차판매	5월		3.040M
6월4일	23: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4월		0.7%
6월4일	23:00	미국	JOLTS 구인건수	4월	8.340M	8.488M
6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5월		52.5
6월5일	17: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5월	53.3	53.3
6월5일	18: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4월	-0.5%	-0.4%
6월5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5월31일 주간		190.3
6월5일	21: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5월	173k	192k
6월5일	22: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5월		54.8
6월5일	23: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5월	50.5	49.4
6월6일	20: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5월		64.789k
6월6일	21:30	미국	신고 실업수당 청구건수	5월27일 주간	220k	219k
6월7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4월	0.6%	-1.2%
6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5월		3.201T
6월7일	18: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1분기	0.3%	0.3%
6월7일	21: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5월	190k	175k
6월7일		중국	수출 YY	5월		1.5%
6월7일		중국	수입 YY	5월		8.4%
6월8일	04:00	미국	소비자신용	4월	10.50B	6.27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6월3일 (월)

- ⊙ 휴장국가: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등

6월5일 (수)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0시45분)

6월6일 (목)

- ⊙ 유럽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9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9시45분)

6월7일 (금)

-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컬럼비아특별구대학교 2024 글로벌 여학생 아카데미 졸업식 축하 (8일 오전 1시)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시장 구조개선 시범거래 RFI 6개 포함 총 27개 기관 참여... 내달 4차례 더 실시 - 외환당국

서울, 5월29일 (로이터) -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7월부터 공식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외환당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실시한 시범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9일 현재까지 총 8차례 시범거래를 통해 달러/원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 체결, 결제 및 회계처리 등 관련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시범거래에 참여한 기관은 15개 국내외국환은행과 6개 증권사, 그리고 6개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 총 27개다.

24일 기준 RFI 등록 기관은 총 23곳이다.

당국은 "남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총 4차례 연장시간대 시범거래를 실시해 많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RFI 및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구조개선 이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中 국영 은행들, 위안 안정 위해 현물 시장서 달러 매도 - 소식통들

베이징/상하이, 5월29일 (로이터) -

중국의 주요 국영 은행들이 최근 위안 안정을 위해 역외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확보한 후 현물 시장에서 매도해 왔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29일 전했다.

이날 역대 달러/위안은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에 6개월 만의 최고치로 상승한 바 있다.

역외 시장에서 이번 국영 은행들의 전술은 지난 몇 달 동안 위안 숏 비용을 높이기 위해 역외 위안 유동성을 타이트하게 했던 것과는 약간 달랐다고 4명의 소식통은 말했다.

모든 소식통은 시장 상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익명을 전제로 발언했다.

(김지연 기자)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